

양과합격기
(제52회 사법시험 / 제54회 행시 법무행정
직 수석합격)

안하면 안된다



오 정 화

- 1982년 4월 생
-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대 졸업
- 2010년(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2010년(제54회) 행시 법무행정직렬 수석합격

I. 들어가며

드디어 사법시험에 합격하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 과분하게도 양과합격 덕에 수많은 축하와 함께 합격수기 요청도 받게 되었습니다. 수험기간도 길었고, 실력도 많이 부족해 많이 망설여지지만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동시에 준비하려는 분들에게는 좋은 정보제공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막하고 힘들 때마다 여러 합격수기를 찾아보면서 다시 힘을 내곤 했던 제가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그 때의 저처럼 괴로움에 글을 읽는 분이 계시다면,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가 합격하기 직전”임을 잊지 마시고, 이제 다 왔으니 곧 다가올 좋은 날도 상상하시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I. 양과합격에 이르기까지

제목은 거창하지만, 사실 연이은 불합격으로 자괴감에 빠져 사법시험을 그만두고 다른 길을 찾고자 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부족한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만두기로 했지만, 그동안 매달린 세월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안타까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공부한 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 같습니다.

행정고시 법무행정직렬은 사법시험의 과목에서 행정학만 새로 추가되므로, 크게 시간을 더 들이지 않고도 병행할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다만, 행시2차 시

험일정이 사시 2차를 4일간 치르고 난 바로 다음주여서 체력적으로 가능한지가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지켜왔던 고시생활이 끝난다는 생각에 시험기간 내내 오히려 흥분했고, 덕분에 소화도 잘되고 잠도 6시간 이상씩 충분히 잘 수 있었어서 2주간의 시험일정이 3순환때보다는 버티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같은 과목을 막판 마무리 정리까지 마친 후, 연이어 한번 더 치르는 식이 된 덕분에 행시합격이 가능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법시험 마지막날 민법 시험을 잘 보지 못해 또 불합격이구나 느끼면서도, 다행히 다음 주에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마웠던 기억이 납니다.

III. 어느 길을 갈 것인지

양과합격을 하였으니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는 질문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한 번도 자신있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릴적부터 꿈꿔온 것은 법으로 봉사하는 법관이었으나 법조일원화의 과도기 상태에 놓여 임관여부도 불투명하고, 또한 공직자로서 정책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고 공익을 실현하는 일도 매력적이라 느꼈기 때문입니다. 현재 행정고시의 공무원 연수원은 2년간 유예를 해두었고 일단 사법연수원에 입교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한 인재들로 이루어진 곳에서의 우수한 교육을 통하여 깊이 있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갖춘 후 결정을 하고 싶습니다.

IV. 공부방법

공부방법에 관하여는 합격생 수만큼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이라고 하므로 각자 생각하시는 대로 자신감있게 밀어붙이시길 바라며 씁니다. 참고로 스테디는 하지 않았고, 학원 실강을 들 때는 신림동 독서실을 다니며 통학하였고, 그 외에는 집 근처 독서실에서 동영상을 보며 공부하였습니다.

1. 사시 1차

8지선다의 시험에서는 시간도 부족하고, 정확한 암기도 필수이기 때문에 최대한 양을 줄여 반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학원 강의를 들은 후, 그 부분에 해당되는 기출문제를 풀고, 책을 다시 읽으며 틀린 부분을 연필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이 때 문제를 풀면 많이 틀리게 되는데, 책 내용이 입체적으로 다가와 기억이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진도별 모의고사 때도 항상 점수가 학원 평균보다 낮았는데, 그 날의 진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꼼꼼히 정독하고 암기하면, 문제는 거의 맞출 수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 종종 진도를 밀리게 되는데다가, 다음엔 틀릴지도 모른다는 이상한 불안감도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평계일지도 모르고, 적은 시간 공부하여 그날의 진도를 빨리 끝내고 쉬려고 선택한 방법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책에 틀린 곳을 표시해두면 다음에는 체크된 곳만 위주로 읽게 되고, 신기하게도 한번 맞췄던 문제는 다시 맞

춘다는 법칙 덕분에, 양이 줄어져 좋았습니다.

2. 사시 2차

2차는 지금도 어떻게 붙었는지 모를 정도로 항상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특히 재시 때는 그 방대한 양의 독서량과 늘 밀리는 진도, 매 순환때마다 메워지지 않는 구멍들 덕분에 2순환이나 3순환에 가서조차도 답안을 거의 못 냈고, 한 과목에 한번 정도 간신히 답지를 내도 과락점수를 받기가 일쑤였고, 한 시간짜리 시험에서는 20점대 초중반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답안작성이라는 것이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를 기본으로 하여 '참신한 목차'와 '정확한 요건포섭', '논리적 근거를 갖되 간결한 학설의 정리', '3줄 이상의 판례적시' 및 '풍부한 사안해결'을 필요로 한다는데 도저히 어떻게 해야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삼시, 사시를 거치면서 알게 된 것은 빠른 답안이라도 매번 진도에 맞춰 무엇이든 외워서 써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신한 목차'나 '독창적이고도 풍부한 사안해결' 등은 일단 암기를 바탕으로 하여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쌓여가는 연륜에 의해서라도 모르게 생기는 것이지, 처음부터 천편일률적인 답안이 될까 두려워하다가는 남들만큼도 못하여 떨어지게 된다는 뼈아픈 사실만 깨닫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시험은 800명만 선발하게 되어, 1000명을 뽑을 때도 붙지 못했던 제가 800명 안에 들 수 있을까 하는 조바심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점수를 받아보니 2차시험은 객관식인 1차와는 달리 주관식인 관계로 실력뿐 아니라 운에도 많이 좌우되며 정답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상답안과 결론이 달라 과락을 걱정했던 과목 점수가 오히려 모범답안과 비슷하게 썼다고 자신한 과목보다 점수가 좋았고, 특히 매년 점수가 저조했고 취약한 제 민법 실력이 일주일 사이에 급변할 리가 없음에도 사시에서는 150점배점에 64점, 그 다음주 행시2차에서는 100점중 83점이라는 고득점을 받았습니다. 저는 행시에서 운이 너무나 좋았던 것이고, 대부분의 아깝게 불합격하신 모든 분들이 절대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만 그 시험에서 운이 조금 부족했을 뿐이었다는 걸 믿으시고 조금만 더 힘내시길 응원합니다.

3. 행시 1차

토익점수는 사시1차를 위해 받아놓은 상태였고 PSAT에 관하여는 막연하게 공부안해도 되는 시험이라는 풍문만 들은 채였으므로 겁도 없이 먼저 점수부터 하였습니다. 그런데 1차시험 일주일 전에 기출문제를 풀어보니 60점대가 나와 당황하여 급하게 하루종일 psat에 매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며칠동안 3개년치 입시, 행시 기출문제를 출력하여 풀고 해설 강의 등을 모두 찾아 들은 결과 다행히 점수가 올라 합격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시험 당일날 아침에는 하루를 버리러 가는 것 같아 고민했던 기억이 나는 걸 보면, 인생은 정말 어떻게 될지 미리 알 수 없으니 가능하면 뭐든 시도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행시 2차

PSAT 시험지를 들고 나와 채점해 보니, 전년도 대비 평균10점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2차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새행정학' 책을 구입하여 소설책 읽듯 첫 장부터 읽어나갔습니다. 행정학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막연한 나름대로의 정리를 간략하게 적어두었는데, 실제 써먹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1차 합격문자를 받고 너무 기쁘면서도 동시에 책 한번 본 것이 전부인 행정학에 대한 부담감이 컸습니다. 따로 공부할 시간이 없어, 학원 모의고사 문제를 구입해서 해설답안을 그대로 베껴 쓰면서 행시 답안지에 채워야 할 분량과 목차 잡는 방식을 익혔습니다. 다행히 행정학이라는 과목 특성상 많이 공부한다고 하여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도 아니고, 공부가 많이 부족해도 어떤 말이든 답안지를 채울 수 있어 과락은 잘 나오지 않는 과목이라는 얘기가 많아 불안을 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너무나 운이 좋게도, 한 문제는 그 날 아침에 들고 가서 보았던 예상문제가 그대로 나왔고, 교수님이 채점날 기분 좋은 일이 있으셨는지 54점이나 주셔서 부끄럽게도 직렬별 수석을 하게 해준 과목이 되어 신기할 따름입니다.

나머지 법학 과목들은 사법시험과 같았는데, 다만 동일한 시간임에도 답안지가 2페이지 더 많아 기출문제를 출력하여 풀어보면서, 목차마다 한 줄씩 띄어 분량을 맞추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시험장에선 사법시험보다는 문제가 짧고 간단하여 생각하는 시간이 줄어서인지, 목차마다 한 줄씩 비워두지 않기도 10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5. 3차 면접

행시에 관해서는 Daum의 '행시사랑'이라는 카페에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법무행정직렬의 면접 정보는 거의 없어 많이 궁금했는데,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보니 이들의 면접일정 중 그날의 토론 주제와 개인발표문은 모든 직렬에 공통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행정직렬만으로 2조를 나누어 단체토론과 개인발표를 하였는데, 결국 법무행정직렬만의 문제는 없었으며, 개별 면접때도 별도로 법에 관련된 질문은 없었습니다. 면접위원님들도 국장님과 민간 헤드헌터, 그리고 외부 교수님이신데 법학전공이 아니신 듯 했고, 개인발표문에 대한 질의와 신상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으며, 제가 마지막 면접자라 그런지 다행히 웃으며 빨리 끝내 주셨습니다.

오히려 사법시험 3차 면접이 저에겐 훨씬 곤욕스러웠는데, 다른 조원들은 5분만에 신상만 묻고 끝내기도 하였으나, 저에게는 40분 넘게 7법에 관하여 모두 물어보셨습니다. 형법에서는 갑, 을, 병이 등장하는 긴 사례문제를 읽어주고 각각의 처벌 등을 물은 후, 다시 사안을 변형하여 갑에게만 고소 취하가 있는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물으시는 등 형사소송법까지 섞여 당황하게 되었고, 그 후 이어지는 상법의 제3자의 신주인수나 행정소송에서의 소송상 화해 가능성 등에 대

하여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 머뭇거리거나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교수님께서 일일이 답을 유도해주거나 설명해주시면서 결국 “시험 끝나고 책 한번 안 펴봤구만~”이라는 평가를 듣고는 심층면접 대상자가 아닐까 싶어 발표 순간까지 떨며 기다렸으나, 다행히 무사히 통과되었습니다.

V. 교재와 강의

이 부분은 정말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시작할 때는 흔히 말하는 대세를 따랐는데, 몇 년간 신입동호름을 보니 대세라는 것도 금새 뒤바뀌고, 극소수 강의를 선택한 사람들도 다수 합격하는 것을 보면, 합불에 영향을 끼칠 요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제가 본 교재와 강의를 열거하겠지만, 마음 편하게 대세를 따르거나 보시던 책을 보시면 충분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강사님들 존경이 생략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차 헌법은 정회철헌법강의, 헌법판례, 금동흠 정선판례사례, 부속법률뿌리 뽑기를 풀었고, 형법은 신호진요론, 형법판례총정리, 민법은 권순환 핵심지문 총정리, 박기현 김중 원공저 가족법을 보았습니다. 특히 도움이 되었던 강의는 금동흠, 신호진, 김동진민법강의였습니다.

2차는 적은 교재로 반복해서 보았는데, 헌법은 정회철 사례연습과 김유향 3순환을 듣고, 행정법은 홍정선 교재는 정리하다 포기하고 김연태 사례집을 요약한 성봉근강사님의 자료를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상법은 김혁봉신강과 사례연습만 보았고, 민사소송법은 이시윤 교수님책을 정리하였으나, 2순환부터는 이창한 사례집만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은 이케바, 형소법은 김정철 내머리속의 형소를 암기했고, 민법은 윤동환 민법사례의 맥을 보았습니다. 물론 학원에서 준 자료도 많이 쌓여있지만, 결국 정리가 안 되어 끝까지 가져가지 못했고, 그 외 다른 교재는 보기에 벅했습니다.

VI. 글씨나 답안분량에 대한 고민

수험생활 내내 저를 괴롭혔던 고민이며, 제일 신경이 쓰여 많이 알아보았던 문제입니다. 우선, 답안분량은 적게 쓰는 사람도 우수한 성적으로 붙는 경우가 있으며, 많이 쓴다고 붙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량을 채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가지지 않아도 되지만, 다만 어느 경우나 분량이 적은 것보다는 7면 이상은 채우는 것이 1점이나마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 써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고 일반론적인 얘기지만, 또한 공부를 많이 할수록 쓸 말도 많아지고 분량도 많이 채우게 되므로 결국은 고민 없이 공부에 매진하는 것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글씨에 대하여도 역시 악필임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붙었다는 경우와 달필임에도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깔끔한 글씨는 분명히 합격에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0.6점차로 떨어진 재시 이후, 합격을 확신

했던 삼시 불합격 때 답안지 열람을 해 보고는 6면까지 간신히 채운데다가 도저히 알아볼 수 없던 제 답안지 글씨를 보고 경악하여 백강고시체를 8개월간 익혀 글씨체를 바꾼 덕인지 이번에 합격하였습니다.

글씨체 자체도 문제였지만, 1시간만 쓰면 팔이 아파 속도가 느려지고 글씨가 더 알아볼 수 없게 되었었는데, 백강고시체의 펜 잡는 방법을 몇 개월 걸쳐 익히고 나니 4시간을 써도 팔이 아프지 않아 신기하고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 몇 개월간은 기존 글씨가 오히려 망가지고 속도도 느려졌으나 책을 복사해서 다시 따라 써가며 매일 2시간이상씩 연습하다보니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내 글씨체로 되며 속도도 다시 빨라졌습니다. 그 덕분에 이번 시험에서는 거의 모든 과목에서 전면을 가득 채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VII.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음 다잡기

사실 고시생에게 어려운 것은 공부 그 자체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제어와 고독감, 그리고 혼자 뒤처지고 있는 것 같은 자괴감을 극복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또한 스스로 통제가 어려워 인터넷 게임이나 만화책, 친구들과의 약속 등에 항상 진도는 밀리고 그로 인해 불합격하는 것 같아 부모님께 죄송하고 저 자신에게 실망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이 고장났던 때를 기회 삼아 핸드폰도 정지해 두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조금 불편하였으나, 의외로 속세를 벗어나 절에서 공부하는 듯한 편

암함이 들면서 날짜각각이 사라져, 진도에 시달리지도 않게 되고 몇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집중력이 높았습니다.

또한 아침형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다 실패한 후, 매일 잠은 꼭 자고 졸리면 낮잠도 자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공부하려 하였습니다. 합격만을 위한 지겨운 공부가 아닌, 미래의 내 직업을 위한 준비과정이나 누군가의 질문에 답하기 위한 것으로 선택하는 등으로 무언가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저 또한 ‘작심이 삼일’이라도 가면 성공이었던 나태한 고시생이었던지라, 책상 위에 온갖 문구를 자주 바꿔 놓았는데, ‘오늘 견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한다’ 나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내일’이라는 말이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기 아깝게 만들었고, ‘엄마가 보고있다’는 중고등학생용 포스트잇은 의외로 탄탄하거나 줄다가 언뜻 보면 깜짝 놀래켜 주는 자극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감을 잃을 때, 스스로 위로하고자 썼던 ‘하면 된다’를 보면서 다시 자만감에 빠져 쉬엄쉬엄 하게 되었을 땐 ‘안’하면 ‘안’된다 를 써 넣어 한동안 불합격할 걱정에 시달려 절박하게 공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비슷한 것으로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만, 도와준다’ 등으로 조금 변형시킨 유치한 문구들을 보며, 지금 하지 않으면 이순간 열심히 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밀려 반드시 불합격할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조금이라도 더 해두고자 하였습니다.

VIII. 감사의 인사

몇 년 동안 아침마다 늦잠자는 저를 깨워주시고, 밥먹으러 집에 와서 티비보느라 안 나가는 저를 독서실로 다시 보내느라 매일 함께 고생하신 어머니, 아버지와 기특한 남동생, 그리고 끝까지 저를 믿어주셨고, 누구보다 합격을 기뻐하시면서 연수원입교식에 꼭 오시고 싶다고 하셔놓고는 먼저 하느님 품으로 가버리신 너무나 보고 싶은 외할아버지 덕분에 이 과분한 영광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항상 믿음으로써 힘이 되어주었던 주희와 혜정이, 태란이, 수나 등 고마운 친구들, 또 이쁜 후배들 혜상이, 수진이, 지윤이, 서경이두 힘내길 바라고, 먼저 합격해서 이끌어준 영립언니, 원아, 그리고 같이 면접 스테디했던 행시 법무행정직렬의 하리언니, 새로미, 광균오빠, 종혁오빠, 창완오빠, 규태, 그리고 재근오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이후 몇 달간 출근했던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김문환 주임님,

김필주 대리님, 신동호 대리님, 인생에 대한 좋은 조언을 해주신 공증실장님, 정경록변호사님, 서권식변호사님, 소병욱변호사님, 그리고 팍팍한 회사생활을 즐겁게 해 준 이쁘고 유능한 여사원들, 민희와 유경이에게도 합격의 기쁨을 같이 해 준 것에 대해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의대 변해철교수님, 이훈동교수님, 박영복교수님, 그리고 세심히 챙겨주시는 의향재 김남길 실장님께서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같이 연수원에 입교하는 유원이와 채희언니, 소준, 이상재, 신병준선배님 등 외대생들 모두 합격을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으며, 수험기간 내내 함께 했고 채점평이나 예상문제, 합격수기 등으로 항상 큰 도움이 되었던 고시계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